

템플스테이 10년...67만여명 체험

불교문화사업단, 3회 문화축제 개최
고유프로그램 발표...노하우도 '공유'

전국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과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템플스테이 운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공주 대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자'는 주제로 제 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전국 118개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과 운영자, 실무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문화축제는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운영자 스님과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로 10년이 되는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템플스테이를 불교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첫 해 33개 사찰에 2500여 명의 내외국인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인원은 67만 여명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 운영을 책임졌던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금산사가 김재 벽골재 농경문화체험프로 그램과 연계해 만든 '쌀로 만든 템플스테이'와 쌍봉사 '단청체험 소원을 말해봐' 등 사찰 고유 프로그램 공모전에 입선한 6개 사찰의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발표회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한 모범 사례를 찾아갔다. 사진 특강과 함께 사찰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 실무자에 대한 활용교육도 진행했다. 또 소통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입재식에 참석한 스님과 실무자들의 모습.

과 발전을 위한 템플스테이 토론회도 열렸다.

한편 지난 5월30일 입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간 종단은 템플스테이가 포교의 목적이 아닌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국내외에 알리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들이

애써준 덕분에 각계의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스님은 "2002년 시작된 템플스테이 사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가율과 국내외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성과 우수한 자원 때문"이라며 "이번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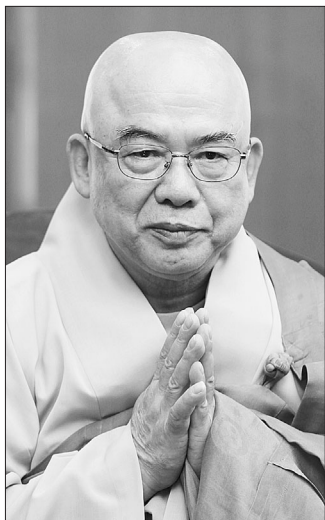
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우수 사찰과 운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제8교구본사 직지사 포교국장 민성스님, 제2교구본사 용주사 대현스님, 백담사 템플스테이 팀에게 돌아갔다.

공주=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이시영 충남지사장 isy@ibulgyo.com

“화합·단결로 한국불교 중흥”

통도사 신임 주지 원산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신임 주지에 원산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이 차기 주지로 추천한 원산스님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잘 화합해 영축총림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전임 주지 정우스님이 통도사를 위해 많은 불사를 했고 사찰사업에 종단에 등록하는 등 공심으로 잘 살아왔다"며 "한 달여 동안 여러 의견이 충돌하면서 생긴 잡음을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일로 말끔히 없애주기 바란다"고 화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산스님은 "그 동안 통도사 주지 선출 문제로 종정예하를 비롯한 원로대덕 스님, 총무원장 스님과 종무행정에 참여하는 모든 스님, 사부대중 전체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 주지 스님의 업적을 이어받아 불교중흥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화답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원산스님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주지 선출 관련 내용과 신임 주지로서의 포부 등을 밝혔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반성하고 잘못된 일은 참회하면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비롯해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우스님과 관계 복원에

대해선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이유에 관해선 "10대에 걸쳐 들어와 교육과 포교 수행 모든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며 이를 방장 스님이 오래 전부터 눈여겨 봐오신 듯하다"며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총림 전체의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것이 스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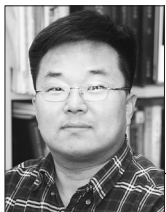
원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산 도명스님은 1964년 통도사에서 경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벽련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전 주지 정우스님은 원산스님을 신임 주지로 임명한 총무원장 스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섭 기자 사진 신재호 기자

‘유사 조계종’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통의 ‘쪽지’를 받았다. 중앙종회의원 의원 스님이 보낸 쪽지에는 ‘유사 조계종’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의원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사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로 인해 불자는 물론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전해왔다.

스님이 지적한 ‘유사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에 ‘국(國)’이란 한글자만 첨가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언뜻 보아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는 ‘유사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100여 단체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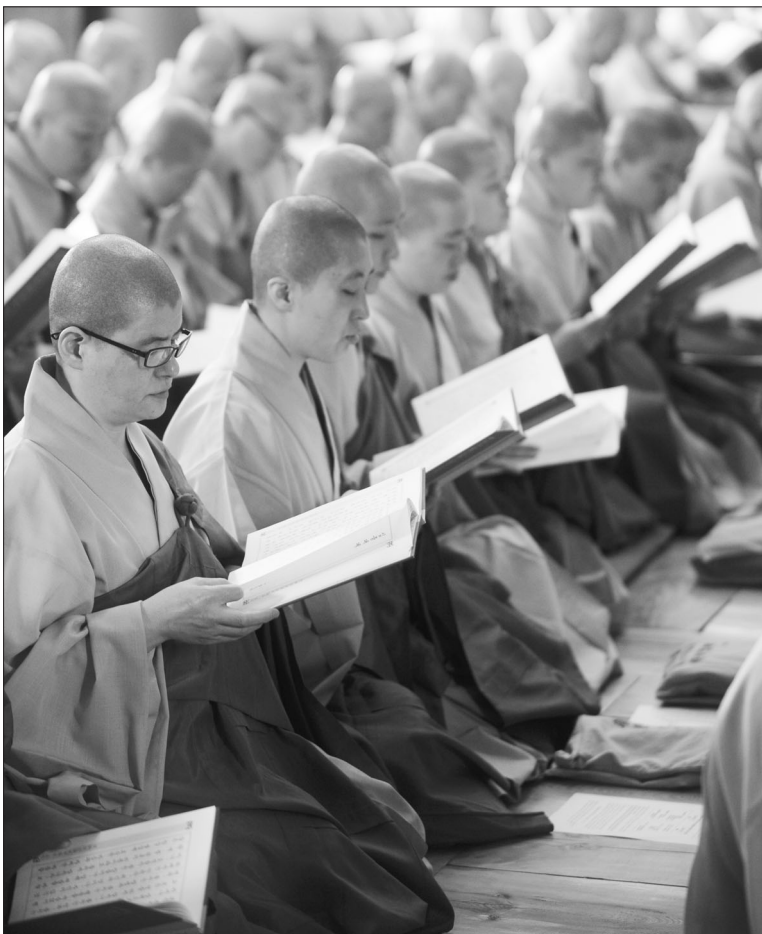
단 등류가 사실상 신고제로 바뀐 뒤에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글을 사용한 명칭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영어로 한국을 표현하는 ‘코리아(Korea) 조계종’만 생기면 된다는 자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조계종’ 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폐단에 대해서는 이미 종단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에서는 지난해 ‘조계종’ 명칭 사용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왜냐면 현행 국가법률로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천주교(가톨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의문이다. 아직까지 ‘유사 천주교’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조계종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유사 조계종’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유사 조계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종단은 물론 일반 불자와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종단 차원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할교구 하안거 첫 포살법회

지난 5월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교수사로 봉행된 '제1차 직할교구 하안거 결계 및 포살법회'에 동참한 30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승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법보종찰 해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품격 복지관

해인! 사소리원 海印寺蘇利院

행복한 노년을 해인 성지에서 보내세요! 스님들과 불자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해인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해인사소리원은 고품격 콘도미니엄형 복지관으로써 개인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주방, 욕실, 발코니 등), 의료시설, 체력단련실, 식당, 다목적 휴게실 등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마주하기 쉬운 무관심과 외로움...해인사 소리원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독립공간을 갖춘 고품격 콘도미니엄형 시설

가야산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환경

잔디공원, 연못, 산책로, 체력단련실 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구성

法寶宗刹 海印寺



전화 : 055-934-3019
팩스 : 055-934-3018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4번지

제33기

(since 1993)

불교전문 호스피스교육

불교 호스피스는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자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을 통한 자기 돌봄과 자기 치유를 우선으로 하며 타인에게 전문적이고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상호관계의 총체적 돌봄입니다.

- 교육기간 _ 2011년 7월 24일(일) ~ 7월 31일 (일) (7박 8일, 임상실습 50시간 제외)
 - 교육대상 _ 사부대중
 - 교육정원 _ 60명
 - 교 육 비 _ 65만원 (교재비 포함)
 - 접수마감 _ 2011년 7월 16일(토)
 - 제출서류 _ 교육지원서, 사진(3×4) 4매
 - 접수방법 _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 접수 및 문의처 _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TEL 052)264-1007, 0117 FAX 052)264-0209
- ※ 스님들이 본 교육을 수료하면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정됩니다.



아름다운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교육원

마하보디교육원은 개인의 성장과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